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3월 3일 (제99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예배드립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다. 바로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예배드린다', '예배한다'가 맞는 말이고 옳은 표현이다. 예배란 '예도 예, 경의를 표할 예(禮)'와 '절배(拜)'로 하나님께 예를 갖춰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라는 말 속에는 경건과 높임, 존경과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표현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어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자가 있고, '성가대 수준이 어떤지 보자' 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예배를 관전하고 관람하는 자들이다. 쉽게 말해 구경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일컬어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 그들이 헌금함에 넣는 돈은 헌금이 아니라 관람료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 4:24)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만은 성공해야 한다. 예배의 성공이 곧 모든 것의 성공이기에 그렇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거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배에 성공한 솔로몬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경우를 보고 깨달아야 한다.

예배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우리 인생의 참 보약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2015년,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를 첫 방문하여 집회를 가졌고, 이후 4년 여 만에 제2성전이 세워졌다. 새로 단장된 성전에 들어가니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그들의 대답이 너무도 해맑고 순수하여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했고,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교회가 예쁘게 마무리된 것에 감사했다. 목사님은 그들 모두를 식당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해야겠다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렴한 식당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가보는 중국식당이라고 한

직접 들어가 둘러보니 피난민들처럼 비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 겨우 비바람을 피할 가건물을 세워놓고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위생상태도 말이 아닌 것이 삶의 질로 보면 마치 우리나라 전쟁 후 5, 60년대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들에게 가난에 찌든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그냥 그 현실에 만족하며 아주 행복한 얼굴들이라는 것이다. 더위에 이방인의 방문이라면 얼굴을 찡그리거나 경계하는 태도를 보일만도 한데 그들은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에게 인사해주었다. 목사님은 동행한 조의수 장로에게 빵, 과자 및 음료수를 사주라 하셨다. 골목골목마다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불러 가게 앞에 일렬

목사님은 세부예수중심교회 제2성전 입당예배를 통해서 성도들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역설하셨다. 목사님은 사자후를 토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셨지만, 그들이 생각을 바꿔 현실을 변혁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목사님은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옛말에 '가난은 나라남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곳을 박차고 나와 텐트라도 치고 잘 살아 보겠다는 열망을 가져야 할텐데, 한편 안타까우면서도 몹시 부아가 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침심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던 말인가. 최근 나는 '노년의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왔다. 오늘 조의수 장로가 보약을 먹었다고 했는데, 나이 들어



필리핀 세부예수중심교회 제2성전 입당예배

다. 세트 메뉴로 주문했는데,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을 다 비닐에 싸서 집으로 가져가겠다며 기뻐했다. 식당을 나서며 목사님은 "올해 해외에 나와 처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며 살자는 솔로몬을 실천에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튿날, 교인심방 및 제1성전 주변 동네를 둘러보며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2015년 첫 방문했을 때는 교회 주변에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군만두를 사서 나눠주고 온 일은 있지만, 그들의 주거지를

로 세우며 과자와 빵, 음료수를 나누어주었는데, 목사님은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을 세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오라하여 모두 나눠주라 하셨다. 가게 주인은 매상이 올라 즐겁고, 어른이고 아이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조의수 장로는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보약을 먹었다."며 기뻐했다. 목사님은 보약이라는 말에, "그래, 이보다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나누어주었지만,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돌려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 최고다!"라며 무릎을 치셨다.

먼 거리는 갈 수 없고 가까운 지역에 복을 전하며 구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곳에 일거리를 만들고 교인들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유 목사가 그동안 큰일을 했다. 이는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세부예수중심교회와 유상진 목사를 위해, 그리고 세부의 영혼들을 위해 다함께 기도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빈민가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다



세부예수중심교회 제2성전 방문



예배 후 성도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주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35~50)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더불어 이 땅에서도 한없는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요12:48). 이 기준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준은 절대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역시 줄었다 늘었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사는 길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듯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는 여덟 번째 재앙으로 온 천지가 흑암에 뒤덮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사흘 동안이나 철흑과 같은 어둠이 있었는데, 이는 애굽 백성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광명을 찾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으로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주야를 내리는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듯 말입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면 누구나 빛을 받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듯,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노는 물이 다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축복을 못 받고, 여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될 듯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볼까요? 이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내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기준됨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말함으로 우리에게 이를 재차 확인시켰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4)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센 땅에 오면 누구나 광명을 맛보듯,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서면 누구나 구원받을 음을 어떻게 말

했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롬3:29~30).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축복의 기준은 좀 다양합니다. 그 이유 인즉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신28: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만지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준 안에만 들어서면 넘어져도

복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는 '십일조'라는 기준을 주셨고(말3:10), 에베소서에는 '부모를 공경하라'(엡6:2~3)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구제'라는 기준선을 주셨습니다(신15:10).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준은 기도임을 말씀하셨으며(막9:29), "여호와와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16:9)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가? 그것을 잘라 버리세요.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29~30). 시어머니를 따라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긴 룿이 받은 축복,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택한 라합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시편 1장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죄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리를 옮기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들어가는 것이면 '넉넉히' 들어가야 합니다. 경계선 말고, 변두리 말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갑시다. 경계에 있다 보면 순간 기준선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나 가룣 유다, 그리고 웃시야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이란 왕이 나

옵니다. 그는 귀인들과 큰 잔치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기명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 기명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거룩한 것이었는데 망령되어 행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심히 모독한 것이고 엄연한 범법이었습니 다. 그러자 큰 손가락이 나와 벽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놀라 술객들과 점쟁이를 불러 이를 해석하라고 하나 아무도 그 말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꿈을 잘 해몽하는 다니엘을 불러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풀이하니,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이요,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 함이었습니 다. 이는 벨사살이 저울로 비유된 하나님의 기준에 필요한 무게가 극히 부족한 자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 경고대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미달은 아닌지, 저울에 달아봤더니 근량 미달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빛을 보기 원하면 빛이 있는 데로 가라

올해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준을 뛰어넘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분명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도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예비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내 차례'입니다.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3:14~21).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겨자씨만한 믿음 ::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2019년 1월 2일에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다. 올해는 우리 교단과 각 가정과 개인, 우리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리라 작성하시고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믿고 입을 크게 벌리면 된다. 올해는 내 차례다. 우리가 축복받을 차례, 우리 가정과 내가 응답받을 차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최고의 것을 주셨다.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성령까지 아낌없이 부어 주셨다.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전2:9). 말도 안 되는 일들, 정신 나간 소리,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믿고 꿈을 키우고 구하면 되는데 못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동경하고 놀라고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듯 바라만 보고 살아야 할까? 올해는 우리 차례다. 꿈을 꾸고 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자.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사우디의 왕이 미국의 프로골퍼를 초청하여 일주일간 함께 골프를 치고 돌아갈 때 감사의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단다. 그 프로골퍼는 왕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사양했으나 왕이 극구 재촉하여 ‘나는 골프선수라서 기념으로 골프채를 모아오고 있으니 기념될만한 골프채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고는 고국으로 돌아와 그 선물을 은근히 기다렸단다. 내심 소금 덩어리로 된 퍼터나 보석이 가득 박힌 골프채가 올까 기대하면서. 3주 후 사우디 왕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물건은 없고 달랑 편지 한 통만 날아왔단다. 놀랍게도 그 속에는 골프채가 아니고 미국에 사우디 왕이 소유하고 있던 60만 평의 골프장을 통째로 선물로 보낸다면 양도증서를 보내왔단다.

왕의 생각과 프로골퍼의 생각이 다른 것이다. 우리도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생각에 너무 못 미쳐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벌린 입이 너무 작지 않나? 내가 준비한 그릇이 너무 작지는 않나? 입을 넓게 열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라는 것, A, B, C, D,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만 내가 C나 D를 선택한 것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최고가 되어 극상품, 신의 성품,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꾸어주며 살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키워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자.

이시대 목사

:: To Be Succeeded ::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들의 제왕으로 불리는 독수리 하면 창공을 솟구쳐 오르는 힘찬 날갯짓과 먹잇감에 집중하는 날렵한 눈빛,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먹이를 낚아채 올리는 포획력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생명력 강한 독수리가 되기까지는 새끼 때 둥지에서부터 어미로부터 받은 혹독한 훈련 뿐 아니라 일생 일대 목숨을 건 결단이 있다.

독수리는 40세 정도 되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은 낡으며 날개가 무거워져 사냥을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한다. 이때 살고자 하는 독수리의 선택은 드높은 바위산으로 날아가 거기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다. 먼저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쪼아대서 튼튼한 새 부리가 나오는데 50여 일, 다음으로 새 부리로 낡은 발톱을 모두 뽑아버리고 튼튼한 새 발톱이 나기까지 또 50여 일, 마지막으로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털갈이하기까지 총 150여 일 동안 사생결단의 시간을 견뎌내면 나머지 30여년을 힘 있게 살아갈 모든 준비가 끝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 중 큰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생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보이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명예나 인기, 미모, 젊음 등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꽃대, 즉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이다. 유명한 가문과 높은 학식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복음을 전하며 풍랑과 배고픔, 추위, 때 맞음 등의 온갖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한 것은, 험산준령을 지내는 가운데 옛 사람을 벗기시고 날로 예수로 더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깊은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이라.

우리도 우리 안에 낡아진 심령, 선택하지 못한 옛 습성들을 뽑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에 때로는 넘어진 자, 근심하는 자, 망한 자 같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날로 하나님 닮게 하셔서 처처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기 때문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비우면 채워진다

명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집을 샀을 때, 차를 샀을 때 등등..., 한동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고 익숙해져 일상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런 사이클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다. 만일 삶의 목적이 소유라면 소유하지 못한 현재는 항상 결핍되어있기에 행복하지 않다. 그저 세상의 목표를 향한 내달림만 있을 뿐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행복은 함께 나눌 때만 현실이 된다).’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 실제로 남에게 베풀면 혼자서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보다 더 마음이 가볍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

나님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얻었을 때의 행복은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얻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요 행복이다. 믿음이 자라면서 자신의 욕심을 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는 것이 본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신을 비워야 그 공간에 은혜가 임한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으며, 자신을 내려놓은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3:30).

김성일 성도
cre8tor@naver.com



:: 생명의 말씀 ::

코람 데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도 유명하나, 컬럼비아 대학 총장 재직시절의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내 사각 잔디정원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잔디보호법을 어기자, 대각선 길을 법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다. 이것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전통이 되었고, 그가 총장으로서 남긴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는다. 다수의 불법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합법화시켜 모두를 살려준 관용적 사례로 말이다.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길을 허락하셨다. 그 길을 통할 때에만 합법적인 자녀로 받으신다(엡2:1~8).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예수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찾으면, 불법자가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라 칭한다. 절대 진리를 배척하고, 다양성과 상대성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구원의 길도 여럿 존재한다고 한다. 상대에 따라 도덕기준도 흔들리고 바뀌는 시대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절대 진

리를 천명하셨다(요14:6).

인간은 모두 상대적인 선(善)을 자랑하기에, 남보다 좀 더 선한 사람이 자랑이 되며 우상시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 곧 그분’ 되신다. 약속에 더하여 그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주셨다(히6:17~18).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늘 ‘서야’ 한다. 코람 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분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라틴어 문구이다.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설 때, 상대적인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 상한 심령이 된다. 그리고 보혈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죄인’이란 말이다. 바로 거울이 없기 때문이다. 패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불법자가 될 수도 있다(마7:23).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 From internet ::

:: 올림 있는 삶 ::

미국 상원 회기 개회식 기도

이것은 조 라이트 목사님이 미국 상원 회기 개회식에서 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슴을 치게 합니다. 기도문의 전문(全文)입니다.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oday to ask your forgiveness and to seek your direction and guidance. We know Your Word says: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but that is exactly what we have done. We have lost our spiritual equilibrium and reversed our values. We have ridiculed the absolute truth of Your Word and called it Pluralism. We have worshipped other gods and called it multiculturalism. We have endorsed perversion and called it alternative lifestyle. We have exploited the poor and called it the lottery. We have rewarded laziness and called it welfare. We have killed our unborn and called it choice. We have shot abortionists and called it justifiable. We have neglected to discipline our children and called it building self-esteem. We have abused power and called it politics. We have institutionalized bribery and called it sweets of office. We have coveted our neighbor's possessions and called it ambition. We

:: 용달샘 ::

진정한 자존심

테레사 수녀가 빵집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빵 좀 기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빵집 주인은 “재수 없어. 얼른 꺼져.”라며 테레사 수

have polluted the air with profanity and pornography and called it freedom of expression. We have ridiculed the time-honored values of our forefathers and called it enlightenment. Search us, Oh GOD, and know our hearts today; cleanse us from every sin and set us free. Amen!”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다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종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인을 연호하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소

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침을 닦으며 또 한 번 사정했습니다. “남는 빵이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갔던 봉사자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굴욕스럽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을 구

홀히 하며(자녀들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며)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아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항의하는 표현으로 기도 중에 퇴장했습니다.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조 라이트가 목사로 있는 중앙 그리스도교회는 47명의 부정적인 반응을 제외하고 5,000이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존심을 버렸습니다(히12:2). 목적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 그것이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존심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중심편집실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붉은 소변, 건강의 적신호?

70대 남자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왔다. 몇 해 전부터 피곤할 때마다 소변색이 붉어졌지만 대수롭지 않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명절에 집에 온 아들이 변기에 고인 아버지의 붉은 소변을 발견하고는 억지로 병원에 끌고 왔다는 것이다. 정밀검사 결과 그의 병명은 방광암이었다. 이미 암은 수년 전부터 상당히 진행되어왔던 것이다.

소변은 혈액에서 신장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소변은 요관과 방광, 요도를 거쳐 체외로 배출된다. 소변 횡수는 계절이나 기온, 마신 물의 양,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 평균 3~5회 정도 소변을 보며, 남자는 1,000~1,500ml, 여자는 800~1,200ml의 소변을 배출한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몸에 수분이 많을 때에는 소변이 투명하게 나오고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에는 어두운 노란색을 띤다. 이처럼 소변 색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피가 소변에 섞여 있는 경우, 선홍색 혈뇨부터 콜라 색까지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는 소변에 붉은색이 비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뇨가 나타난다 해도 통증은 거의 없으며, 증상 없이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험한 상태가 많다. 붉은 소변은 그야말로 건강의 적신호인 것이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원인은 다양하다. 단순히 방광에 염증이 있어 점막이 손상된 경우에 피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요로감염이라 한다. 신속하게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요로결석 역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 질환으로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 때 소변의 일부가 침착되어 결석이 만들어지는데 결석은 소변 길을 따라 요관, 방광, 요도를 이동하며 주위 조직이나 점막 등에 상처를 내 혈뇨가 발생하게 된다. 요로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증상 없이 배

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아이를 낳는 산고와 비슷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세균까지 생길 수 있어 응급치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 혈뇨의 원인으로 요로 계통의 암이 있다. 요로 계통의 암이 위험한 이유는 암세포가 소변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잘되는데 초기증상은 거의 없고 오직 붉은색 소변이 제일 흔한 증상이다. 눈으로 붉은 소변을 확인했다면 분명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니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건강의 적신호임을 꼭 알아.

‘경영은 점검’이라고 목사님은 늘 말씀하신다. 자신의 몸을 잘 경영하는 방법은 늘 점검하는 것임을 알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눅12:23).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틈새시장을 공략하라

나는 배달 위주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적은 자본으로 무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젊어서는 생계수단으로 작은 음식점을 찾아 전전했지만, 큰 꿈을 가지고 대기업을 누볐으며, 어렵게 국회 식당에까지 갔지만 10년 넘게 근무하면서도 최연소라는 이유로 갖은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도맡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러나 남몰래 식단표를 모으며 레시피를 메모하고 요리책을 뒤졌다. 그래서 훗날 영양사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업한 식당은 일 년 내에 열 집 중 여덟 집이 문을 닫는다는 불경기에도 살아남은 나머지 두 집에 포함되었기에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긴 연휴와 날수가 짧은 2월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달이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고민 끝에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하기로 했다. 긴 연휴로 거의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인터넷으로 배달 주문수를 분석했고 과감하게 극소수를 향한 극소수의 식당이 되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앱과 여러 경로를 통해 광고를 했는데 내 생각은 적중했다. 설날 새벽 일찍 큰집에 다녀온 후 점심이 임박해서야 영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내내 갑절 이상의 매출 신기록을 갱신했다. 쉬지도 못하고 힘들다는 딸아이의 푸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단데 우리는 돈 받으면서 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니? 쉴 것 다 쉬고 잘 것 다 자면 언제 성공하겠니?” 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다. 딸은 오토바이로, 남편은 전기자전거로, 요리를 담당하는 나는 틈만 나면 소형차로 배달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대행업체를 통해 해결했다.

거의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여도 기도하고 찾으면 기회는 온다. 틈새시장은 어느 분야에나 있기 마련, 찾고 구하고 분석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토대가 되어야 함은 필수! ‘안 해서 못하는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상기해본다.

추성숙 집사

이초석 목사 태국집회

치앙라이
3월 3일 ~ 10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